

완도군, '숲 생태해설 자원봉사자' 양성



완도군은 숲 생태해설 자원봉사자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완도수목원과 신지 해조류 스파랜드에서 숲 생태해설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2018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 '완도수

목원 난대 숲 감성체험'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22명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했다.

교육에서는 숲 생태체험 자원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지식 등 기본 교육과 함께 실제 완도수목원을 둘러보는 심화교육을 통해 관

완도수목원·신지 해조류 스파랜드서 교육

32명 자원봉사자, 양질의 숲 해설서비스 제공

광객들에게 조금 더 친근한 해설방법 교육 등이 이뤄졌다.

문체부 공모사업 '완도수목원 난대숲 감성체험'은 자원봉사자 인력 양성 외에 2019년까지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반딧불이 생태체험 ▲숲길 정비 ▲노르디위크 체험 ▲숲공예 ▲숯 가마길 복원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관광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공모사업이 완료되면 완도수목원 난대숲의 보다 넓은 구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코스가 개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들은 '완도수목원 난대숲 감성체험

사업 진행과 함께 완도수목원 곳곳에 배치되어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숲 해설서비스를 제공하여 완도 난대림 숲이 가진 가치와 기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워크북 활용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요 관광객이었던 중장년 및 노년층 이외에도 어린이, 학부모 등 다양한 관광객이 수목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로도로 지역의 여러 우수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생태관광도 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높여 갈 계획이다.

원도=김광수 기자



무안군은 일로읍 화산백련지 내 야외 물놀이장을 오는 13일 개장해 다음달 15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매년 3만 여명이 찾고 있는 화산백련지 어린이 물놀이장.

무안 화산백련지 내 야외 물놀이장 오늘 개장한다

내달 15일까지 운영

무안군은 연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일로읍 화산백련지 내 야외 물놀이장을 13일 개장해 8월15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물놀이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이용요금은 성인 7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6000원, 어르신 및 유아는 5000원이며 무안군민은 감면요금이 적용된다.

군은 개장에 앞서 물놀이장에 어린이풀, 유아풀, 파도풀을 비롯한 샤워실, 매점, 그늘막 등 편의시설과 그늘막시설 등 부대시설을 확대했다.

지난 2016년 개장한 물놀이장은 인기를 끌면서 매년 3만 여명이 찾는 지역의 여름철 명소로

지림매감하고 있다.

이 곳에는 최신 시설의 오토캠핑장도 조성돼 가족단위, 단체모임 등으로 이용하기에도 좋을 해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드넓은 인근 화산백련지에 핀 백련의 수려한 경관은 덩"이라며 "매일 주차관리와 쓰레기수거, 응급처치 지원 등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안전과 수질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한 문의는 화산백련지 (061-285-1323~4)나 홈페이지 (http://tour.muan.go.kr/lotu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정남진장흥농협, 하반기 홍콩 첫 수출길 올라

표고버섯 3톤·무산김 13000세트·김치 6000세트



장흥의 대표 특산물인 원목 표고버섯, 무산김, 김치가 지난 11일 홍콩 수출길에 올랐다. 수출 물량은 표고버섯 3톤, 무산김 13,000세트, 김치 6,000세트를 비롯한 장흥 특산물로 약 2억 원 규모다.

이날 장흥군을 떠난 수출품은 13일 부산항에서 선적돼 홍콩으로 출발한다.

이번 수출은 올해 초 장흥원목표고버섯 35톤 수출 계약 협의 후 하반기 첫 수출이다.

정남진장흥농협(조합장 강경일)

과 장흥군이 손잡고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창출과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강경일 조합장은 "홍콩과의 꾸준한 신뢰로 인해 매년 계약 물량 및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가공식품 등 수출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발굴하여 해외시장개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준승 장흥군수는 "원목표고버섯을 비롯한 장흥특산물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다각도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남진장흥농협은 지난해 홍콩과 일본 등으로 13억원 수출하였고 전반기에도 미국에 표고차 첫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안군, 어린이집 대상

'SOS 물놀이 안전교육'

10대 안전수칙 및 대처요령 교육

무안군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일 화산백련지 물놀이장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아 1,100여명과 교직원 230여 명을 대상으로 SOS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교육은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및 상황별 대처요령 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했으며, 특히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운영하여 비상시 대응방안을 몸소 체험하고 배우는 장이 됐다.

또한, 바람개비 만들기, 물총서바이벌, 에어바운스, 비눗방울놀이 등 다양한 물놀이 체험으로 아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내에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여수시, 첫 '사랑방 좌담회' 개최

고소천사벽화마을서 주정차 해결방안 등 고민

여수시는 고소천사벽화마을로 유명한 중앙동을 시작으로 '사랑방 좌담회'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권오봉 여수시장은

12일 오후 중앙동을 시작으로 27개 읍면동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갖는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 주민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 시장은 첫 방문지로 이순신광장과 해양공원 등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중앙동을 선택했다. 이곳의 고소천사벽화마을은 전국적으로 유명해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다. 권 시장은 고소천사벽화마을 인근 도로를 둘러본 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정차문제 해결방안 등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진도군, 동외지구 공공임대주택 기공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 등 진도군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동외지구 공공임대주택 기공식이 12일 개최됐다.

이날 기공식은 오전 11시에 이동진 진도군수와 LH 임직원, 지역 유관기관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동외지구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총 사업비 168억원을 투입 ▲영구임대주택 24㎡형 40세대 ▲국민임대주택 110세대(27㎡ 40세대, 37㎡ 38세대, 46㎡ 32세대) 등 총 15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다.

이 사업이 오는 2020년 완공되면 무주택 저소득층 가정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거 안전이 가장 필요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LH 관계자의 노력과 지원, 그리고 진도군민들의 열망이 함께 했기에 오늘 기공식이 열릴 수 있었다.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내 건축자재 구입 및 인력 활용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